

브라질 순례팀의 코스펠트 순례



안네탄 수녀원에서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수녀님들 덕분에 올해 세 개의 소규모 순례단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브라질에서 온 일행으로, 4월 22일 로마에서 도착했으며, 마리아 노에미아 수녀, 마리아 이데테 수녀, 마리아 마릴렌 수녀, 마리아 발디나 수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모원에 거주 중인 브라질 출신 통역 로리 이네즈 수녀의 동행을 받았습니다. 순례 기간 동안 수녀님들은 하우스 엠마우스 게스트하우스, 안네탄 수녀원, 하우스 울리아 등 여러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10 일간의 일정은 알차고 다채로웠습니다. 코스펠트 시내를 걸어 성 람베르티 성당과 수녀회 창설지를 둘러본 후, 일행은 웨히타로 이동하여 브레머하픈의 이민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안네탄 수녀원 수녀들과의 만남에서는 순례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활동에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 밖의 주요 일정으로는 뮌스터와 엘팅 신부님의 고향인 둘멘 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정에는 벨기에 나뮈르로의 하루 여행도 포함되었는데, 이곳은 줄리 수녀님이 아미앵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은 후 1809년에 공동체를 이전했던 곳입니다.

이번 순례는 주최 측과 방문객 모두에게 큰 풍요로움을 선사했으며, 전 세계적인 수녀들의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